

농공분야의 국제화, 이대로 좋은가?



이 봉 훈

(bhlee@maf.go.kr)

한국관개배수위원회 감사
농림부 기반정비과장

최 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농업의 다
원적 기능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논농업
국가간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성과 경험,
기술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의 결과로 '04년도에
INWEPF(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
Ecosystem in Paddy Field)가 창설되었다. 첫 창립
모임이 '04년 11월 동경에서 열렸고, 제2차
INWEPF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1월초 서울에서
열려 아시아 14개국과 8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논농업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행동계획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 운영위원회
에서는 '06년 3월에 개최되는 제4차 세계물포럼
(WWF4)에 전달하는 INWEPF의 메시지를 채택하
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바 있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19일간 말레이시아 콰라
룸푸르에서는 제3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워크
숍이 개최되었다. 일본은 '나까조' 농촌진흥국

차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이 참석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측은 농림부에서 필자를 비
롯하여 박병태 사무관, 한국농촌공사의 박상현 박
사, 조진훈 박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
에서는 각 참여국이 2차 회의 때 보다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ICID의 WG-
SDTA(Working Group-Sustainable Development of
Tidal Areas)와 INWEPF가 공동으로 내년 7월에
서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INWEPF내에 3개의 Working Group을 만들어서
한국·일본·말레이시아가 각 1개씩 주관하면서
보다 적극적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자발적으로 내년 제4차 태국
회의에 이어 후년에 제5차 회의를 유치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서로 공통의 이익을 위
해 함께 더불어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힘
을 합쳐 자국(自國)의 입지를 굳히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국제화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논농업을 위한 관개배수 분야, 더 나아가 농공분야는 나름대로 해외에도 진출하고 국제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관개배수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인 ICID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매년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활발한 Working Group 활동을 하고, 특히 그 중에 『지속가능한 연안 개발분과위원회 (WG-SDTA)』는 한국농촌공사의 박상현 박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금년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워크숍에서는 농진청 이덕배 박사, 농경연 김홍상 박사, 건국대 김선주 교수, 강원대 최종대 교수 등이 연안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고, 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소개한바 있다. 그 동안 ICID에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INWEPF의 경우를 보면, 2004년 제1회 동경회의에 이어 2005년에 제2회 서울회의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여 새로 출범한 INWEPF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ID-INWEPF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결집을 유도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농공분야의 국제활동이지만, 이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체계적 대응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도 국제감각을 지닌 젊은 인물을 양성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적극 대응하고 활발히 참여해야 하는 국제회의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내년에 열리는 농공분야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보면 6월에 이란에서 개최되는 ICID 아시아지역회의가 있고, 7월에 서울에서 ICID-INWEPF 공동 워크숍과 곧이어 태국 방콕에서의 INWEPF 운영위원회 개최가 있으며, 9월에는 미국 세크라멘토에서 ICID 총회 및 집행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 물포럼(WWF)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물포럼(APWF)이 발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일본 주관으로 아태지역 물 관련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고 무감각하기까지 한 현실임을 볼 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편으로 국제회의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전문인력들이 국제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어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나가며 인맥을 관리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적절한 예산지원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더욱이 불안한 점은 그 동안 역할을 해온 국제회의의 전문가 선배님들이 대부분 은퇴하면서 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외국인들과 서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분을 쌓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공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인 INWEPF와 ICID를 각각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 농촌정책국과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내부에서 전문가를 발탁하여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계

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ICID Working Group에서도 보았듯이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러한 학문적 배경이 요구되는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제몫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도 앞으로 농공분야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을 만들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모임에는 경험 있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젊은 인재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이 모임을 통해 앞으로 ICID 및 INWEPF 참여방향, Working Group의 운영계획, 후계 인력의 양성, 분야별 국제 워크숍의 개최,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임이 실효를 거두려면 뜻있는 농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정력을 할애하여 참여해야



한다.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은 벌써 많은 준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 왔다는 것을 각종 국제회의 때마다 느낄 수 있다. 또한 일본은 관계, 학계, 사계가 함께 참석하여 각자의 역할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과 함께 아시아를 선도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또한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늦을지도 모른다. 이제 농공분야의 국제화를 위해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대학, 민간 연구소 등 모든 관련 조직에서 관심 있는 전문인들이 뭉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하루빨리 이러한 자발적이고 건설적인 국제 전문가 모임이 태동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아시아에서 또한 세계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농공분야의 우수성과 적극성을 제대로 알리고,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국익(國益)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CID 홈페이지 개설

KCID 홈페이지가 2006년 7월 28일(금)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방문하시어 유익한 나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ekcid.org

